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배포일자		2022년 6월 27일(월) 총 2매	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해양항만과	담 당 자	• 항만계획팀장 정 현 ☎ 440-4816 • 담당자 신성인 ☎ 440-4819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대이작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
- 1,800㎡ 주차장 조성, 대이작항 어촌 정주여건 개선 기대 -

인천광역시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용진군(매립면허취득자)에서 추진한 ‘대이작과일렛부두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’을 6월 27일자로 매립 준공 고시했다.

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어촌뉴딜 300 중 하나로, 2020년 8월부터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면적 1,800㎡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달 초 준공됐다.

대이작항은 선착장을 이용해 조업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, 특히 주말에는 나들이 차량으로 혼잡이 빈번한 지역이었다. 이에 시와 용진군은 교통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.

시는 용진군에서 제출한 준공검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, △매립목적 △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승인내용 등과 부합하므로 「공유수면법」 및 규정 절차에 따라 준공 처리했다고 밝혔다.

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용진군 대이작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을 통해 어촌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.” 고 말했다.

[붙임] 대이작항지구 위치도 및 현장사진

